

남북협력동향

(2007. 12. 15 ~ 2008. 3. 14)

■ 러시아, 북한 나진항에 화물터미널 건설 예정(12. 19, 한국경제)

- 러시아철도공사는 18일 북한 나진항에 연간 32만개 컨테이너 처리가능한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
 - 화물터미널 건설에 약 1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
- 화물터미널의 건설은 러시아·북한 합작회사가 담당할 예정
- 러시아는 7,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블라디보스톡 - 나진간 철도(54km)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
 - * 나진항 화물터미널의 건설은 '01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임

■ 개성공단 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 개최(12. 22, 통일부 등)

-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07. 12. 20~21일 개성 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
 -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7개조에 합의
- 주요 합의 내용
 -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08. 1월 중순부터 연간 매일 7:00~22:00까지 상시통행 보장 (일요일 통행시 48시간 전 통보)

- 출입업무, 출입심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를 '08년 상반기 중 운영
- 통관방식을 선별검사로 시행
- 1만5천여 명 규모의 북한 근로자 숙소 착공('08년 상반기)
- '08년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 개성공단협력분과위 제2차 회의를 '08년 2월중 개성 개최

■ 북-중-러 연결 철도 건설 합의(12. 26, 연합)

- 연변일보에 따르면 북·중·러 3국은 25일 중국 도문(圖們)에서 철도·화물 수송 회의를 개최하고 두만강-도문-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전격 합의
 - * 중국의 도문-북한의 두만강역은 '92년 이후 운행이 중단된 상태임
- 참석자 : 북한 청진철도국 부국장 한철호, 중국 선양(沈陽)철도국 부국장 부명길, 러시아 극동철도국 부국장 카라와에프
- 합의사항 : 수송 조건, 수송량, 화물의 인수인계, 화물열차 회기일 및 사용료 청산·결산, 국제수송 운임 등

■ '07. 1~9월 북한-캐나다 교역 현황(12. 27, KOTRA)

- '07. 9월 기준, 북한의 대 캐나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0% 증가한 US\$ 117,904, 수입은 37.2% 증가한 US\$ 16,268,066을 기록
- 북한의 대 캐나다 수출품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 신발, 메니큐어, 합성 모포 등
- 주요 수입품목은 의약품, 산업용 기계와 식료품 등

<'07. 1~9월 북한-캐나다 교역현황 >

(단위: US\$)

	'06.1~9월	'07.1~9월	증 가 율
수 출	49,040	117,904	140.4%
수 입	11,859,004	16,268,066	37.2%
무 역 수 지	△11,809,964	△16,150,162	36.8%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12. 31, 통일부 등)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07. 12. 28~29일 개성 경제협력협의 사무소에서 개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비전 △과제 △추진방향 △세부 사업별 일정 등에 대해 협의 하고 합의서를 채택
- 주요 합의 내용
 - '08년 상반기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및 해주지역 현지조사 '08. 1. 31일 실시('08. 1월 중 관련 실무접촉 개최)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 데 따라 공동어로 실시
 - '08년 상반기 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08년 상반기 안에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08년 상반기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07년 남북교역 현황(1. 7, 통일부 등)

- '07년도 남북간 교역액은 17억9,789만 달러로 '06년 교역액 13억4,974만 달러 대비 33%증가
- '89년 시작된 남북교역은 '05년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07년 사상 최고액인 약 18억 달러를 기록

- 상업적 거래는 14억3,117만 달러로 '06년 9억2,807만 달러 대비 54% 증가, 비상업적 거래는 3억6,672만 달러로 '06년 4억2,166만 달러 대비 13% 감소
- 상업적 거래 증가는 광산물 등 일반교역(52%)과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생산품 반입(48%), 의류 등 위탁가공교역(30%)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 '06년 대비 모래 53,673→104,636천 달러, 무연탄 621→14,469천 달러, 선철 261→21,198천 달러, 알루미늄괴 591→12,985천 달러, 개성공단 관련 섬유류 13,451→67,422천 달러 증가

<'07년도 거래형태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달러, %)

구 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 계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경제협력	경공업협력	대북지원	사회문화	에너지지원	
교역액	461,409	329,910	440,678	126,670	72,506	328,903	932	36,889	1,797,897
구성비	25.7	18.3	24.5	7.0	5.4	18.3	0.1	2.1	100

<연도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연도	'90	'97	'00	'02	'05	'06	'07
교역액	13,466	308,339	425,148	641,730	1,055,753	1,349,739	1,797,897

■ '07년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현황(1. 14, 통일부 등)

- '07년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은 편도기준으로 선박 11,891회, 자동차 183,501회, 항공기 153회, 철도차량 24회 운행 등 총 195,569회 운행
- '07년 물동량은 선박 2,511만t, 자동차 90만t, 철도차량 219.5t 등 총 2,601만t을 수송
- 주요 수송화물은 북한산 모래, 대북 식량지원, 수해복구 지원품목(시멘트 등), 무연탄, 원부자재(의류, 전자부품), 비료, 농수산물

<'07년도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현황>

수송 수단	년도	운행횟수			물동량 (단위: 만t)		
		남→북	북→남	계	남→북	북→남	계
선박	'06	4,177	4,224	8,401	88	1,542	1,630
	'07	5,901	5,990	11,891	135	2,376	2,511
자동차	'06	62,287	61,837	124,124	38	37	65
	'07	91,892	91,609	183,501	32	58	90
항공기	'06	44	44	88	-	-	-
	'07	77	76	153	-	-	-
철도	'06	-	-	-	-	-	-
	'07	12	12	24	0.018	0.00319	0.02195
계	'06	66,508	66,105	132,613	117	1,580	1,696
	'07	97,882	97,687	195,569	167	2,434	2,601

■ 단둥세관, 중국 전체 대북 수출입 통관의 70% 점유(1. 17, 연합뉴스)

- 중국 단둥(丹東)세관 통계에 따르면, '07년 단둥세관을 통과한 북중 수출입액은 13억9천만 달러(206만9천t)로 중국정부가 추정하는 '07년 북중 전체 수출입액 20억 달러의 70%를 차지
- '07년 단둥세관을 통과한 북중 수출입액은 '06년에 비해 12.9% 증가
- '07년 단둥세관을 통과한 대북 수출액은 11억6천700만 달러(129만8천t), 대북 수입액은 2억2천900만 달러(77만2천t)임

■ 미국 민간단체, 북한내 개인사업 자금대출 추진(1. 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저개발국 주민에게 무담보 소액 사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미국 민간단체 키바(KIVA)*가 북한주민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
- 키바의 피오나 램지 홍보국장은 “이미 소규모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호주 마라나타(Maranatha) 신탁회사와 접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힘

- 마라나타 신탁회사는 '05년부터 북한 재무성과 금융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소액 사업자금을 대출 중
- * 키바(KIVA) : 저개발국 주민을 도우려는 제3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금 대출을 알선해주는 미국 민간단체로, 현재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등 39개국의 소규모 사업가에게 21만 건, 19백만 달러의 대출을 알선함

■ 남북, 해외 경공업 공장 공동 참관(1. 2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 실무자로 구성된 참관단을 구성하여 1. 29일부터 2. 4일까지 중국, 베트남 지역을 방문
- 참관단 구성(총 10명) : 남한- 전준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경공업실장 등 4명, 북한- 리영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명지총회사 실장 등 6명
- 이번에 방문하는 7개 공장은 중국과 베트남에 남한 기업이 투자한 대표적인 경공업 공장 들임
- 중국 : 효성, 보끄레머천다이징
- 베트남 : 방립, 나눔무역, 태광실업, 화승, 한영산업

■ 남북,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치 합의(2. 5, 통일부 등)

- 남북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5일 개성에서 개최하고, 금강산 관리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기로 합의
- 금강산 관리위원회 주요업무
-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 기업들의 창설승인·등록·영업허가 등 행정업무, 소방·안전 관리 및 현지 기반 시설 관리 등

■ 유니세프, '08년 대북지원 예산 1천500만 달러(2. 13, 연합뉴스)

-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는 '08년 대북지원 예산으로 1천500만 달러를 책정

○ 지원 계획

- 보건·영양분야(800만 달러) : 주민 800만 명(102개 군)에게 백신, 필수 의약품 제공, 임산부 30만 명에게 영양제, 비타민 제공
- 수질·위생분야(600만 달러) : 노후 상수도망 개선 사업 지원, 정수제 공급 등
- 교육분야(100만 달러) : 교과서 개정, 위생 안내책자 발간, 일선교사대상 응급구호 강습 등

* 유니세프의 대북지원 예산은 '06년 1천120만 달러, '07년 1천만 달러였음

■ 북중, '훈춘-나선 일체화 계획' 경험의제로 상정(2. 14, 연합뉴스)

- 훈춘(琿春)시에 따르면, '훈춘-나선 일체화 계획'이 '07. 9. 4일 제3차 북중 경제무역과 학기술협조위원회 의제로 상정
- '훈춘-나선 일체화 계획'이 양국 정부의 공식 경험의제로 상정된 것은 처음
- 그동안 일부 중국 민간기업들이 북한 측과 투자의향서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진항 개보수 등에 나섰지만, 자본 부족·북핵 문제 등으로 실행이 지체
- '훈춘-나선 일체화 계획' 주요 내용
- 훈춘시-나선시간 연결도로 건설, 나진항 부두 보수·증설(공동투자), 외국기업 입주공단·보세구역 설립

■ FAO, 북한을 「'08년 식량 위기국」으로 분류(2. 17, 매일경제)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08년 외부식량원조가 필요한 위기국(Countries in crisis requiring external assistance)'으로 분류
- FAO는 '곡물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 2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힘
- FAO는 '08년 중('07. 11~'08. 10) 북한이 11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

- 북한은 '07년('06. 11~'07. 10)의 경우 식량 57만(식량원조 35만 포함)을 수입한 바 있음
- * FAO는 '07년에도 북한을 '외부식량원조가 필요한 위기국'으로 분류한 바 있음

■ 중국 길림성, 북한에 인민폐 무역결제 허용(2. 21, 연합뉴스)

- 중국 길림(吉林)성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회사, 개인에 대해 인민폐의 무역 대금 결제를 허용하는 무역결제 제도를 시행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따르면, 길림성은 국가외환관리국 길림성분국이 제정한 '길림성 변경무역 외환관리 실시세칙'을 정식으로 공포
- 세칙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회사, 개인에 대해 ① 인민폐 무역전용 계좌의 개설 허용, ② 인민폐로 북한 내에서 외화 환전 허용'
- 현재까지 북중 무역대금 결제는 현금결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결제가 가능해질 전망
- * '04년 조선중앙은행과 중앙인민은행이 지불결산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요녕(遼寧)성은 '요녕성 변경무역 외환관리 실시세칙'을 발표하고 인민폐를 이용한 무역대금 결산을 합법화한 바 있음

■ 북한, 개성공단 거주 등록 수수료 요구(3. 2,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의 거주 등록 수수료 요구
- 북한은 '07. 1월 개성공단 상주인력에 대해 체류·거주 등록과 함께 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요구해 현재 1년째 협상이 진행 중
- 북한은 거주 등록 수수료로 단기체류(90일내)시 35달러, 1년 이상 거주시 100달러를 요구
- 현재 개성공단 체류·거주 등록 대상자인 남측 인원은 800여명
- 북한은 '03. 12월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에 근거해 수수료를 요구 중

- *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에 따르면 단기체류는 90일 이하, 장기체류는 91일 이상 1년 미만, 거주는 1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자의 체류·거주 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 등록을 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3. 7, 연합뉴스)

- 현대아산은 북한과 금강산 승용차 관광을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금강산 승용차 관광상품 출시
 - 관광객들은 자신의 승용차로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통관하여 북측 금강산 내 호텔에 주차
 - 현대아산은 금강산 금강지구 내 주차시설 보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관광상품의 예약 진행 중
 - 이 관광상품은 2박3일 일정으로 가격은 1인당 34만원(전세버스 관광과 동일)으로 책정

■ 북한-UNEP, 4대 환경사업 합의(3. 8,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유엔환경계획(UNEP)은 대동강 유역 통합 수자원 관리 등 4대 우선 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합의하고 5월부터 착수할 예정
 - 양측이 합의한 환경개선 사업분야는 ① 대동강 유역 통합 수자원 관리 ② 도농 주택 에너지 효율 증대 ③ 북한 국토환경보호성내 ‘환경센터(국제 환경동향 전담)’ 설치 ④ 공공 캠페인 개최(환경의식 제고 목적)
- 수렌드라 슈레스타 UNEP 아태국장은 “환경사업안의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3~4월 중 케냐 나이로비의 UNEP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 관리들이 방콕 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 UNEP 아태국장은 “UNEP가 북한의 환경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 수질, 대기 등 문제와 관련한 기술·정책적 훈련을 ’04. 1~’07. 11월 중 수십 차례 평양, 태국 방콕에서 실시해왔다”고 밝힘
- UNEP 아태국장은 ’03년 발표된 ‘북한 환경상태 보고서’에서 몇 가지 심각한 환경문제가 부각돼 북한당국과 협의 결과 4대 우선사업안이 도출되었다고 설명

- * 남한 정부는 '07. 11월 UNEP와 북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440만 달러를 기탁하기로 한 바 있음

■ 개성공단 생산액 3억 달러 초과(3. 13,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05. 1~'08. 2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 누계액이 3억997만 달러를 기록
 - 동 기간 월평균 생산액 증가율은 16% 기록
- '08. 2월말 현재 가동기업은 69개, 공장 건축 중인 기업은 38개이며, 북측근로자수는 23,953명임
- *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액은 '07. 1월 1억 달러, '07. 9월 2억 달러를 돌파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구 분	'05년	'06년	'07년	'08.1~2월	총 계
생산 실적	14,906	73,737	184,779	36,550	309,972
수출 실적	866	19,825	39,669	7,524	67,884

■ 프랑스 구호단체, 북한 곡창지대 복구 지원(3. 13,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프랑스 국제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북한 서해안 간척지 복구사업을 진행 중
 - 트라이앵글이 복구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평안남도 온천군 금성리 증악노동구에 위치한 금성간척지 3천2백ha
- 앤 트리혼다(Ann Trehondart) 트라이앵글 북한 담당관은 “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 4배 면적이 농사 가능 간척지로 복구된다”고 말함
- 트라이앵글은 복구사업을 위해 '06. 12~'09. 6월(31개월) 간 유럽 원조기관 유럽에이 드로부터 지원받는 200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

- 복구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증악노동지구 거주 주민 3천6백 명, 복구사업 노동자 1천5백 명, 북한 기술요원 200명 등에게 일자리, 식량이 제공될 예정
- * 트라이앵글은 '02~'05년 평안남도 은율군 서해안 간척지 복구사업을 완료,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이 2천ha 간척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집트 오라스콤,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5월 시작(3. 13, 연합뉴스)

- '08. 1월 북한의 휴대전화 운영권을 획득한 이집트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5월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3년간 이동통신 사업자 면허 취득, 설비투자 등에 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오라스콤 텔레콤은 평양 등 3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해 북한 시장에서 가입자 1인당 연간 평균 수익 12~15달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